

제6대 전북발전연구원장에 강현직 교수 선임

- 전북발전연구원 원장에 강현직(56) 교수가 선임되었다.
- 전북발전연구원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추천받은 강현직 협성대 교수를 제6대 전북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의결했다.
- 강 신임 원장은 전주고와 건국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와 건국대에서 언론학 석·박사 학위를 취득했다. 서울신문 기자, 문화일보 편집부장, 경기개발연구원 초빙 수석연구위원, 헌법재판소 소장 비서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, 현재는 협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.
- 강 원장은 언론계와 연구기관, 대학, 법조계 등 전문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중앙 정관계의 두터운 인맥으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물론 정책현장의 실천적 감각을 갖춰 중앙의 인맥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뒤진 전북의 입장에서 전북발전연구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.
- 한편, 강현직 신임 원장의 취임식은 10월 31일 오전 10:30에 연구원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.